

# 일본, 성 소수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혜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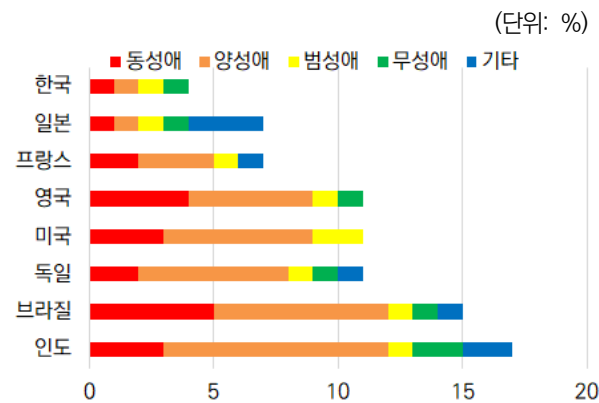
정인영 연구원

## 요약

최근 일본에서는 성 소수자들이 금융서비스 이용 시 겪는 불편함이나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동성 커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들에게 공적증명서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전 세계적으로 성 소수자의 권리보호가 제도화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포용 차원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대응은 증대될 것임

- 최근 일본에서는 성 소수자(Sexual and Gender Minority)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나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상품가입요건 완화 또는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sup>1)</sup>
  - 성 소수자는 성별, 성 특징,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이 주류의 규범과 다른 사람들을 지칭함<sup>2)</sup>
    - 성 소수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성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람(Queer 또는 Questioning)을 의미하는 LGBTQ가 사용됨
  - 일본은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아,<sup>3)</sup> 성 소수자들은 금융서비스 이용 시 이성 부부와는 다른 요건을 적용받아 옴<sup>4)</sup>
    - 개인의 성 정체성을 질문한 Ipso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조사대상자의 7%가 LGBT라 응답함<sup>5)</sup>

〈그림 1〉 국가별 성 지향성·정체성 응답비율



자료: Ipsos(2021), "LGBT+ Pride 2021 Global Survey"

〈표 1〉 대륙별 동성혼 법적 허용 국가

구분	국가
유럽 (1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메리카 (10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미국, 우루과이
아프리카 (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대만

자료: HRC Foundation, "Marriage Equality Around the World"

1) 日本經濟新聞(2022. 12. 19), "金融商品, 進むLGBTQ対応・住宅ローンや損害保険"  
 2) 국가인권위원회(2021),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3) 동성혼은 2001년 네덜란드가 처음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2개국과 지역에서 법제화됨  
 4) 성 소수자의 경우 금융서비스 외에도 교육, 노동, 주거 등의 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19)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2.7%가 LGBT라 응답함(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20)

- 금융기관에서의 LGBTQ에 대한 대응 확산은 동성 커플을 대상으로 공적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증가 및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변화에 기인함
  - 지방자치단체가 동성 커플에 대한 공적 지위를 법 대신 파트너십 형태로 인정하고 증명서를 발행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가 2015년에 도쿄도의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 처음 도입되었음<sup>6)</sup>
    - 파트너십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0월 기준 240여 개로, 일본 전체인구의 62.2%가 해당됨<sup>7)</sup>
  -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를 배려한 대치를 한 기업 중 8.7%가 동성 파트너를 가족수당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기업 차원에서도 동성을 배우자로 간주하여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남<sup>8)</sup>
- 성 소수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는 대형금융기관과 지방은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성 배우자와 이성 배우자 간 금융서비스 혜택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sup>9)</sup>
  -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AXA손해보험 등은 보상 대상 배우자에 동성 파트너를 추가하여 법률상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자와 비슷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sup>10)</sup>
    -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동성 파트너는 본인·배우자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배상 책임보험특약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보장혜택이 늘어남
  - JA뱅크, Higo은행(肥後銀行), 114은행(百十四銀行), 도쿠시마다이쇼은행(徳島大正銀行) 등은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각각의 수입을 합산해서 대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대출기준을 변경함
  - 미쓰이스미토모카드, 오리엔트코퍼레이션(Orico) 등은 동성 파트너에 대해서도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함

〈표 2〉 성 소수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사례

구분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대출 및 신탁	신용카드
주요 내용	공적증명 또는 동거확인으로 보험금 수령자 지정	공적증명 또는 동거확인으로 배우자 보상 대상에 편입	공적증명서 제출을 통한 연대보증 허용, 동성부부 합산 대출 허용	가족카드 발급 허용
사례	일본생명, 제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도쿄해상일동화재, AXA손보, 손보재팬, 미쓰이스미토모, 아이오닛세이동화손보	JA뱅크, 미즈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신탁은행	미쓰이스미토모카드, 오리엔트코퍼레이션

자료: 日本經濟新聞(2022)을 재구성함

- 전 세계적으로 성 소수자의 권리보호가 제도화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LGBTQ에 대한 대응 및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임<sup>11)</sup>

6) 國分麻里(2021), 「지방 자치 단체의 동성 파트너십 제도의 도입 과정과 요인: 이바라키현(茨城県)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7) 파트너십, 東京都が開始 LGBTQの家族公認(<https://www.nikkei.com/telling/DGXZTS00002480X01C22A0000000/>)  
 8) 日本經濟新聞(2022. 11. 30), “性的少数者の権利保護、自治体・企業が先行 海外も”  
 9) 다만, 동성 커플은 법적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시 세제상의 이점이 부족함(日本經濟新聞 2022. 12. 19)  
 10) HuffPost(2022. 12. 23), “アクサ自動車保険、同性パートナーを「配偶者」として補償開始。LGBTQイベントで抗議を受け「安心を届けたい」”  
 11) IFC(2022), “Inclusive Banking: Emerging Practices for the Economic Inclusion of LGBTI People, World Bank”